

고등교육 정책소식

대학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기술지주회사 CEO는 12월 16일(수) 기술지주회사 CEO간담회에서 2015년까지 대학 및 연구소가 50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550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3조3천 여 억원의 매출과 1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학기술기반 벤처육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안병만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7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CEO가 참석하여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및 설립 촉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병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현장도 방문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연구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1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HYU Holdings)를 시작으로 총 8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술지주회사에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250여 억원이 출자되었고, 17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커넥트코리아(Connect Korea)사업인 선도 TLO(Technology Licence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 육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지원 금액을 현재의 6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대학도 현재 18개 대학에서 80개 대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는 대학규모와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대학의 TLO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10여 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학당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현물 출자시의 기술가치평가, 자회사 출자기술의 기술사업화 검증, 회사 설립시의 전문기관 컨설팅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예정〉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할 예정이다.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출자시 기술(현물) 출자비율을 원칙적으로 50% 초과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요건을 30%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의 기술 및 경영자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를 기술이전(Licensing), 창투조합 출자, 기업컨설팅 등 일부 영리업무도 허용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을 연구기관도 단독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 지원단”을 설치〉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지주회사회사 설립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협의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 지원단”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에 설치되며, 법률, 금융, 마케팅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준비 중이거나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재무 회계, 기술평가, 마케팅 등에 대해 일괄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자문위원회”도 운영토록 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사전심의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들로 “기술지주회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협의회에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지주회사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초기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해결이 되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개 대학 현장점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는 15일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 47개교 중 선도대학 15곳으로, 당초 입학사정관제 추진 의지가 강하고 대입전형시 영향력이 커 입학사정관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과 관련한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당초 사업비의 70%만 지원하고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나머지 30%를 교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전형의 공정성,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점검 결과 비리가 있거나 특목고를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30%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과부 차원의 감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단은 교수, 현직 입학사정관, 재정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1차적으로 평가하여 현장점검시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장점검단은 3명씩 4개조로 나뉘어 교과부·대교협 관계자와 함께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15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교과부·대교협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는 이 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매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정보검색서비스 대학경쟁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으로 2009. 12. 15(화) 교육 정보공시제 시행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08. 12월 처음 시행된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1부에서는 교육정보공시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와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가 시연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2부에서는 ‘교육정보공시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는 종전의 ‘학교알리미’에 검색기능이 전혀 없는데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번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정보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주요지표 검색하기”를 통해 22개 공시정보에 대하여 학교급, 학교유형(국/공/사립), 지역(시,도/시,군,구) 등을 선택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정보 열람하기”를 통해서 개별 학교의 전체 공시정보를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상세보기”에서는 선택한 학교의 공시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의 전국/시,도/시,군,구 평균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학부모 학교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여〉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용효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학부모의 학교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교경영의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 1. 학교알리미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구분 | 시행 이전(%) | 시행 이후(%) |
|--------------------|----------|----------|
|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58.9 | 76.5 |
| 학교교육 참여 확대 | 51.4 | 62.8 |
| 효율적·투명적 학교경영 | 56.6 | 69.3 |
|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 조성 | 45.8 | 67.1 |

출처 : 학교정보공시 성과와 발전과제(이용효, 2009)

또한 학교정보공시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관심정보 추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으로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는 공시정보 중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에 대하여 대학의 상대적 수준을 식별기호(가칭 신호등 체계)로 보여줌으로써 공시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제고하고 종합적 이해를 돕는 부가서비스이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대학정보공시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의 70% 정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았거나 일부를 찾았다고 대답한 반면, 대학정보공시제 유용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78.93점/100점 만점)했다”면서 이는 대학정보공시제에서 많은 정보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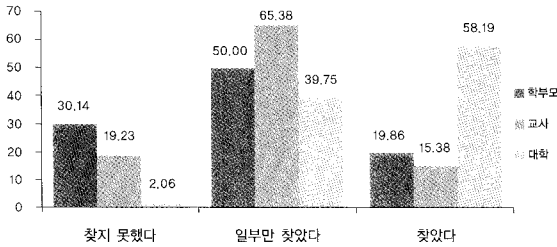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알리미를 통해 원하는 정보 취득 여부 (전체 응답자 중 각각을 선택한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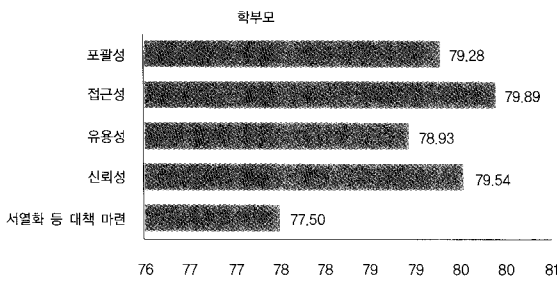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평가(학부모) (매우 불충분 60점, 불충분 70점, 보통 80점, 충분 90점, 매우 충분 100점)

'글로벌 한국학' 육성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높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2월 11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글로벌 한국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연구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브랜드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한국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한국학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학문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각국이 자국학(自國學)의 해외 전파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와 이웃인 일본, 중국은 자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각 일본학, 중국학의 육성 전파에 정부 재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국의 공자학당은 자국학을 전파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해외 한국학은 양적측면에서 비약적 성장〉

글로벌 한국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과 해외 현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해외 한국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현재 전세계 대학에 한국학관련 강좌가 2,000여 개에 이르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학회도 30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한국학은 아직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수 숫자, 연구비 등 양적 측면에서 이웃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현격한 열세이다. 예컨대, 시카고 대학의 한, 중, 일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학을 1로 했을 때, 중국학 45, 일본학 69이다. 교수 숫자는 한국학 3명, 중국학 20명, 일본학 11명 등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도 해외 한국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타 분야에서 널리 읽히는 세계적 명저가 해외한국학에서는

또한 대학정보공시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부모들이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사용의 용이성과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학정보공시제 발전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시체제 정립과 지표의 신뢰성 제고, 허위공시 제재 강화 및 총괄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교육정보공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더욱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얻을 수 있도록 공시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한국학 발전의 견인자인 해외한국학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한국학 분야의 장학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어렵고, 같은 대학에 한국학 전공 교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수 한 명에게 과도한 행정부담, 학생지도 부담이 지워진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전문학술서적 집필이 매우 힘들며 세계적인 한국학 명저 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글로벌한국학 전 세계에 보급〉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석이 되는 글로벌한국학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한국학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한국학세계화랩 도입한다. 한국학세계화랩(Lab)은 세계적 석학을 중심으로 연구단위를 만들어 이를 장기 지원하여 세계적인 학문성과를 만들고 후속 연구인력을 교육하는 기능도 담당함으로써 세계적 임팩트를 높게 된다. 2010년에 5개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10년간 총 27개 국가에 50개 랩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을 강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현재 7개국 14개 대학에서 2010년에는 17개 대학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에는 전 세계에 50개 해외한국학중핵대학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한국학중핵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지원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해외 한국학중핵대학의 신청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대학에서는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한국학 전공자를 우선 채용하는 현상도 나타날 정도이다. 그동안 글로벌 한국학은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기존업적, 제도적 기반, 연구계획서, 연구진 구성 등의 평가항목을 중시했다. 이러한 공개경쟁 시스템에서는 취약지구의 한국학을 육성시키기 어려워 앞으로는 취약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 지원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 취약 지역을 연구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나 관련 학과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학 취약 지구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2010년에는 케냐 나이로비 대학과 국내 아프리카 전공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덴마크 등 북유럽 5개국 공동운영인 노르딕 아시아연구소(NIAS, Nordic Institute for Asian Studies)의 한국학연구를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글로벌 한국학 육성 사업이 경제 10대 대국, 지식 10대 강국에 걸 맞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학업성과’ 정책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12월 17일(목) 오후 1시30분~4시30분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업성과, 어느 정도인가?’를 주제로 제2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배용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의 기조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3개의 주제발표와 다양한 입장에서의 토론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에서 이배용 회장은 “OECD를 비롯하여 최근 대학생의 질적 평가를 추진하려는 경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대학이 열어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학생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21세기 인재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학은 새로운 문제 발굴 및 해결, 인성 및 가치관 형성, 문제 제기, 토론 및 도전, 블랜디드 러닝의 교육내용을 다루고, 학습능력평가로 평가 방법이 변화하여야 하며 즉, 교수 연구력 위주 평가와 대학 유형에 따른, 그리고 학생 교육력 위주

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포럼 1주제 발표는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방안의 주제로 최정운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하였으며, 2주제는 양정호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로 본 대학생의 능력을 발표하였다. 이수영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CESA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방안의 3주제가 이어졌다. 3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김정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 임효섭 크레듀 팀장, 윤형식 매일경제 사회부장, 이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창윤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은 대학교육의 질 평가 지표로서, 대학교육 학습성과의 평가 방안을 함께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학교육 학습성과의 평가 방안이 국내외 대학간에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입학사정관제 90개 대학 총장간담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12월 4일(금), 오후 1시 서울 상암동 대교협 5층 회의실에서 2009년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배용 회장을 비롯하여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한 90개 대학 총장(정부지원 47개 대학과 독자실시 대학 4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이 참석하여 올해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관심사였던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와 관련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의 운영사례를 듣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 참석자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학사정관제 운영 방법 개선 방안
- 정부 및 대교협의 지원체제 확대
- 대학간 우수 사례 상호 교류
- 대학의 다양한 인재 발굴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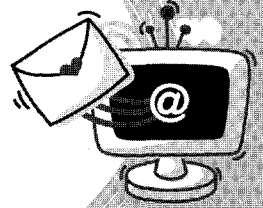
- 국민적 관심사인 입학사정관제 홍보 확대

세계대학 총장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11월 20일(금) 10시 20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09 KCUE 세계대학총장포럼"을 개최하였다. 대교협의 이번 세계대학총장 포럼은 주요 국의 총장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 총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대교협 이배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문화적 소양과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폴 웨블리(Paul Webley) 영국 소아스(SOAS) 총장은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현황과 영국의 국제교류 특징 및 협력유형 등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국제교류를 통한 학위제도의 질 보증과 유럽 내 국가 간 호환을 위해 국제적 통합을 강조했다. 제1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초중등 대상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인 PISA와 같은 것을 고등교육에 적용하여 2012년 실시예정으로 준비중인 고등교육 학업성취도 국제평가(AHERO)에 대하여 이를 주관하는 OECD의 바바라 이싱거(Babara Ischinger) 국장의 개요 설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평가가 주로 연구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AHERO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습과정 및 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로 판단된다. 제2주제인 주요국의 대학교육 혁신 사례 첫번째로 독일의 호스트 히플러(Horst Hippler) 칼스루에공대 총장이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대학통합 이후, 칼스루에공대의 글로벌 최고수준의 핵심인재 유치 전략, 학제간 연구방안 및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홍콩의 랩치 추이(Lap-Chee Tsui) 홍콩대 총장은 홍콩 대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개혁 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세 번째는 한국의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21세기 창의적 고등교육을 위한 통합적·총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하여 한동대에서 추진중인 전인교육,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균형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안나 리폴(Ana Ripoll) 바르셀로나자치대 총장이 유럽통합 이후 유럽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에 대하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유럽 내에서 학생들의 국가 간 대학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 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